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스카이드aily

NH證 주가조작 걸렸다... '패가망신법' 2호

합동대응단, 본사 압수수색 고위 임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 지인들에 알려 20억 부당 이득 '무관용 원칙 따라 엄정 조치'

NH투자증권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했다.

합동대응단은 28일 오전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NH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회사의 공개매수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 임원을 수사하고 있으며 공개매수 핵심 정보를 공표하기 전에 지인 등에게 전달해 약 20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게 했다는 의혹

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아직 공시되지 않았지만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을 사고 팔거나,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미공개정보 이용은 단순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넘어 방치할 경우 정당한 투자 유인을 사라지게 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라며 "혐의자 측이 친인척 명의 등 차명계좌를 다수 사용했고 공개 전후로 거래의 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28일에 임원 집무실과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 했고 매매 내역과 서버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후 상황은 아직 확인되

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정황이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병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합동대응단 출범 직후 발생한 '2호 사건'이다. '1호 사건'은 올해 9월에 발생했으며 자본시장법상 '지급정지'가 집행된 최초 사례가 됐다. '1호 사건'으로 합동대응단은 범죄수익의 환수와 추가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한 강경 기조, 이른바 '한 번 걸리면 끝인 윈스트라이크' 아웃 대응 원칙을 분명히 했다.

당시 합동대응단은 수천억 원대 자금을 동원해 저유동성 종목을 장기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대형 시세조종 세력을 적발했다. 유통물량을 사실상 장악한 뒤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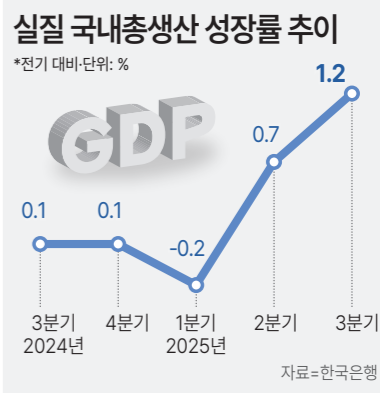
통정매매와 허수성 주문, 시가-종가 관리 등 전형적 수법이 동원됐고 취득 시세차익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주택·부동산 등 외부 담보나 우회자금까지 동원된 복합 구조가 드러났고 자금 흐름 추적을 위해 압수수색과 계좌 동결이 동시 전개됐다.

공개매수는 통상 현 주가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 경영권 분쟁·지배구조 개편 국면에서 '호재성 정보'로 인식된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법은 해당 정보의 공표 전 이용·전달을 엄격히 금지한다. 그럼에도 최근 공개 전부터 주가 급등과 거래량 폭증이 잦아졌고 거래소 시장감시를 통해 다수 정황이 포착돼 금융위·금감원에 통보됐다.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이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개매수 주관 55건 중 28건을 맡아 약 51%를 차지한 만큼 이번 수사는 대형 주관사의 내부 통제 실효성에 대한 경고라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크다고 봤다.

합동대응단은 확보한 전자자료와 매매 기록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자금 흐름 확인을 위해 관련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와 동일·유사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와 동일·유사계좌에 대한 분석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벤트 공표 이후 이상 매매 포착 종목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을 예고했으며 금융당국은 사실관계 확정 시 형사절차와 별개로 과징금 부과, 임원 선임 제한, 내부 통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세희기자 saylee@skyedaily.com



3분기 깜짝 성장 GDP 1.2% 증가 소비·수출 회복으로 호조

3분기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2% 성장했다.

한국은행은 28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서 민간 소비와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1.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1.7%다.

지출 항목별로는 민간 소비가 자동차, 통신기기 등 내구재와 의식, 의료 서비스 등의 비내구재 소비 확대 영향으로 1.3% 증가했다. 정부 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와 물건비 증가로 1.2% 늘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류를 중심으로 2.4% 증가하며 반등세를 나타냈다. 반면 건설투자는 건물건설 부진이 이어지며 0.1% 감소했다.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증가로 1.5% 늘었고, 수입 역시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3% 증가했다.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이 운송장비, 전자 및 광학기기 중심으로 1.2% 증가했다.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전기업 회복세로 5.6%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1.3% 증가하며 전반적인 성장세를 견인했다. 농업업은 재배업 부진으로 4.8%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2분기까지 지지부진했던 성장률은 이번 분기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 수출 회복세로 반등했지만 건설투자와 농업 부진의 여전한다는 평가다.

한은은 "이번 GDP 속보치는 일부 9월 실적자료 미반영으로 향후 발표될 잠정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경자기자 gjuu@skyedaily.com

아세안 끝나자마자 경주로...李大통령 '실용외교' 드라이브

APEC 정상회의 D-2

오늘 CEO 서밋 개막 특별연설 다자무대서 국익 극대화 힘

29일 경북 경주가 세계 외교의 중심 무대로 떠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과 잇달아 회담에 나서며 '실용외교'의 역량을 총투입한다. 쿠알라룸푸르 아세안+3 정상회의를 마친 그는 곧바로 경주로 이동해 '정상외교 슈퍼워크'의 분무대에 오른다.

이 대통령의 첫 임정은 29일 APEC 최고 경영자(CEO) 서밋 개막식 특별연설이다. 그 직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외교·경제 모든 현안을 압축한 최대 승부처다. 8월 워싱턴 회담 이후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3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협상이 여전히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타결에 매우 가깝다"고 발언했지만 투자 규모와 손실 분담, 배당 방식 등 세부 쟁점이 남아 있어 정상 간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안보 협상도 병행된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동맹 현대화 합의문 등이 문서화 단계까지 진행됐으나, 관세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공동 발표는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면서도 동맹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 달 1일에는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으로 경색된 한-중 관계 회복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중국이 차기 APEC 의장국이라는 점에서 '협력 지속'의 상징적 합의가 예상되지만 마중 경쟁 구도 속 한국의 외교적 줄타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이 대통령은 "안미경중(安美經中)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미국 중심의 경제·안보 구조를 분명히 했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실질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END(교류·정상화·비핵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의 협조 확보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30일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그의 첫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시바 전 총리와 서둘러 외교 복원을 이끌어냈지만, 우의 성향으로 분류되



마트에 몰린 외국인 손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 유통업체가 K브랜드 알리기에 분주하다. 28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제타플러스 서울역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단순한 기업 홍보를 넘어 다양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해 쇼핑 수요까지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이정원 기자

는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은 새로운 시련이다. 역사 문제에 대한 원칙을 지키면서도 한-미일 협력의 안정적 틀을 유지해야 하는 외교적 균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워싱턴 국가안보실장을 미리 도쿄에 파견해 회담 조율에 나선 상태다.

이번 APEC은 단순한 외교 회담을 넘어 'K소프트파워 외교'의 실험장이기도 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APEC 유통 퓨처테크 포럼'을 열고 '경주선언'을 채택했다. 롯데쇼핑·GS리테일·쿠방·현대백화점·아마존·징둥닷컴 등 국내외 유통기업 300여 명이 참석해 인

공지능(AI) 전환, 친환경, 국제표준 협력을 3대 과제로 채택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APEC은 세계 GDP의 60%, 교역량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경주선언이 산업과 기술의 미래를 잇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사람 중심 휴먼브랜딩 심성으로 만들어 갑니다

진심 담은 이야기로 마음을 브랜드하다

SkyeDaily

변화의 본질을 담아, 내일의 브랜드 이끌다
심성브랜드연구소